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HGIT Newsletter

2018년 제16호 봄호(3월)

발행인 조민호

편집장 심요섭(33기)

편집위원

34기: Elena Kim

35기: 이우석, 임재민

36기: 김희재, 박창진, 정유진, 주혜림

2018년 3월 창간/16호

<http://tourism.hanyang.ac.kr/>

2018년 3월 6일 #1

글의 순서

1. 국관원 주요 뉴스 - 국관인의 밤 & 전기 학위수여식
2. KTX 경강선 개통 소식과 북측 인사 탑승 후기
3. 2018 미쉐린 가이드 서울 분석하기
4. 지속가능한 착한 관광 '공정여행'

5. 다크 투어리즘 - 한국과 미국 사례지 소개
6. 대한민국의 봄 축제 - 태안 세계튠립축제, 창원 진해군항제
7. 싱가포르의 가성비 높은 맛집 대공개! - 싱가포르 먹킷리스트
8. 인천국제공항의 재도약 - 제2여객터미널 개장

☺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

1. 국관원 주요 뉴스 - 국관인의 밤 & 전기 졸업식

글/구성 33기 심요섭

안녕하세요. 33기 편집장 심요섭입니다. 여러분 겨울방학 잘 보내셨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12월 22일에 있었던 '국관인의 밤 & 홈커밍데이'와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입학하시는 37기 신입생 여러분들께도 응원과 환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2017 국관인의 밤 & 홈커밍데이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콘래드 서울에서 국관인의 밤 & 홈커밍데이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번 국관인의 밤은 기존 재학생 위주의 행사가 아닌, 재학생과 졸업한 동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는데요. 조민호 원장님을 비롯한 김남조, 현성협 교수님이 대학원을 대표로 하여 참석하였고,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주 국관원 총동문회장, 오성근 대외협력처장이 축사를 하였습니다. 이영무 한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정인화 국회의원, 성세정 KBS 아나운서 등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석자 분들 모두 뷔페식사를 즐김과 동시에, 타로카드, 전문가의 의상 코디 추천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겨서 호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을 끝으로, 원우회장 선거가 진행되었고 김지환 원우회장이 재선출되었습니다.

☀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 백남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졸업하는 선배님들의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3명의 졸업생 선배님들과 조민호 교수님, 이훈 교수님, 현성협 교수님, 행정팀 그리고 김영주 총동문회장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그 외 졸업생 가족들과 다른 원우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학위수여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학위증 수여, 공로상 시상, 원장님 훈화, 동문회장님 축사, 재학생/졸업생 송사,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되었고 공식 행사가 끝난 후 마지막은 개별적인 축하 메시지 전달 및 사진 촬영 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와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졸업하신 선배님 모두가 힘든 길을 택하셨지만 좋은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며, 다시 한 번 졸업 축하드립니다!

☀ 졸업생 명단 (23명, 가나다순)

관광 · 호텔경영전공 (16명)

구민희, 김경태, 김명환, 김현정, 노나영, 박근호, 송나랑, 신연수, 유하, 윤서호, 이형권, 정가영, 조문예, 최윤선, 최정훈, 한의진

융합관광전공 (4명)

손은희, 정동현, 정재경, 조아현

문화 · 엔터테인먼트관광전공 (3명)

박지연, 양림지, 진미숙

☀ 신입생 명단 (25명, 가나다순)

관광 · 호텔경영전공 (12명)

김은주, 노푸른, 오은영, 윤솔빈, 이봉민, 이서윤, 장준하, 전민정, 전지영, 정보라, 최유진

융합관광전공 (9명)

김경혜, 김서정, 김준형, 문태윤, 양상은, 왕레이, 이주은, 임서하, 최별

문화 · 엔터테인먼트관광전공 (4명)

김자은, 바쉬코 알리사, 우지영, 윤강호

☺ 졸업 &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PHOTO



국관인의 밤 & 전기 학위수여식 주요 장면

2. KTX 경강선 개통 소식과 북측 인사 탑승 후기

“강릉으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조금 이따 서울에서 보자.”

글/구성 36기 김희재

(편집자 주) 지난 12월 말 서울과 평창, 강릉을 잇는 KTX 경강선이 개통한 이래, 수많은 관광객들이 강원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선수단과 대표단, 관광객 등을 빠르고 편안하게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이자,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 ‘평화의 KTX’로도 활용이 되었는데요. 경강선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현송월, 김여정 등 북측 인사의 KTX 경강선 탑승 후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더욱 빨라진 강원도



지난 2017년 12월 22일에 개통된 KTX 경강선

2018 평창 대회를 앞두고 지난 12월 KTX 경강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오늘 3월 9일 동계패럴림픽대회 개막식에 이어 6개 종목 80개 경기가 치러지는데 강원도 강릉, 평창에 어떻게 가야할까요?



KTX 경강선 노선지도 및 정보

강릉행 경강선은 서울역과 청량리역 두 곳에서 승차할 수 있고 소요 시간은 약 1시간54분이며, 운임은 27,600원입니다(서울역 기준). 한편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50분, 평창까지 63분, 강릉까지 86분에 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X 덕분에 백두대간 대관령 너머의 강릉까지 교통체증 없이 빠르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 KTX를 탑승하는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이동 시간이 줄어든 덕에 온전히 강릉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 강릉의 구석구석이 재조명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말 그대로 강릉이 핫한 관광지라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TX 개통은 단순히

2. 북측 인사 탑승 후기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위)과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아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남북한이 함께 참가하는 ‘평화’의 의미까지 더해져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회 전후로 북측 주요 인사가 KTX 경강선을 타고 강원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북한의 고위간부로는 첫 번째로 1월 21일 현송월 단장이 KTX에 승차하였고, 이때 강릉까지 KTX-산천(8량)의 8호차 일반실을 이용했습니다. 일반 예약고객들과 같은 열차를 타고 이동했기에 북한의 고위 간부가 탑승한지 몰랐던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6,7,8 호차 전체를 전세객차로 이용하였으며 당시 현 단장의 풍기는 모습이 남달랐다는 풍문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특유의 눈인사가 인상적이었다는 승무원의 전언도 있답니다.

두 번째, 2월 9일과 10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평창과 강릉을 오갈 때 KTX를 탑승했습니다. 이때는 현 단장 탑승 때보다 경호가 더 강화되었는데요. KTX(18량) 특실 3호차를 탑승하였고 18량 전체를 일반 고객 및 정차역도 없이 서울-평창, 강릉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동행한 경호원들이 주위에 있으며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되면 “거리를 유지해 달라”며 요청했다고 합니다.

KTX 경강선이 평창 대회 성공개최와 남북 평화를 이어주었듯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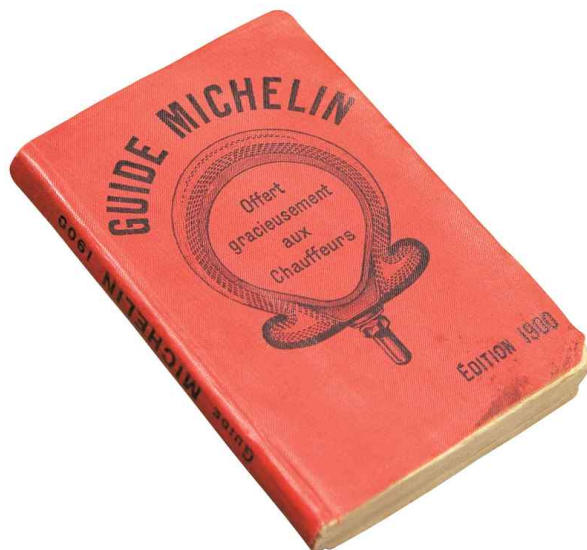
3. 2018 미쉐린 가이드 서울 소개하기

“스타는 오로지 요리에만 담겨있다.”는 말처럼, 평가원들은 음식만을 평가합니다.

글/구성 35기 임제민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미식(美食)이 주류의 문화로 성장되어 라이프스타일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공중파 골든타임에 요리 프로그램을 소개하던 일본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의 쿡방, 먹방이라는 플랫폼으로 소비되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레스토랑, 맛집 등 SNS상에 태그(tag) 되는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SNS로 소개 되는 레스토랑은 점차 맛집과 멋집의 혼돈을 주고 있지만 본질은 맛이기에 저는 맛집과 멋집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으로 미쉐린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미쉐린 가이드란?



1900년에 제작된 미쉐린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의 역사는 1889년 프랑스 중부의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에서 앙드레(Andre)와 에두아르(Edouard) 미쉐린 형제가 미쉐린 타이어 회사(Manufacture Francaise des Pneumatiques Michelin)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 프랑스에는 자동차대수가 3,000대에 불과했고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 모험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쉐린 형제는 운전자에게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법, 주유소의 위치, 여행 중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잠을 청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같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책자가 미쉐린 가이드의 탄생이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최고의 식당과 호텔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미쉐린의 직원으로 소속된 전문 평가원(Inspector)들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탐색합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익명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100여년의 세월 동안, 울퉁불퉁했던 도로들은 첨단 고속 도로로 변모했으며 미쉐린의 발전과 함께 음식 또한 발전했습니다. 과거의 조리사는 오늘날 셰프가 되었고 장인은 예술가가 되었으며 전통 요리는 예술적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동안 미쉐린은 여행자들의 동반자로서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 왔습니다. 미쉐린 스타(MICHELIN Star)는 미쉐린 가이드의 가장 유명한 상징입니다. 1926년,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식당을 소개하기 위해 시작되어 오늘날 미식 문화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미쉐린 가이드에서 구분하는 구체적인 등급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시죠.

2. 미쉐린 가이드 등급 및 선정기준



미쉐린 스타 표기법

✧ 미쉐린 스타: 최고의 레스토랑

미쉐린 가이드는 해마다 가장 뛰어난 레스토랑을 선정하여 미쉐린 스타를 부여합니다. 미쉐린 스타는 훌륭한 요리를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 레스토랑에 선정되는 것은 전세계의 평가원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을 의미하며, 셰프에게는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스타는 오로지 요리에만 담겨 있다”는 말처럼, 평가원들은 음식만을 평가합니다.

✧ 빕구르망

미쉐린 스타 이외에도, 미쉐린 가이드는 ‘빕구르망(Bib Gourmand)’을 소개합니다.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되는 빕구르망(Bib Gourmand)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음식과 맛을 선사하는 친근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의미합니다. 미쉐린의 마스코트 비벤덤이 입맛을 다시는 픽토그램으로 표시되는 빕 구르망은 1957년 처음 도입되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각 도시별로 구체적인 가격대 (유럽지역은 35유로, 일본은 5,000엔, 미국지역은 40달러) 이하로 훌륭한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을 선정합니다. 서울에서는 35,000원 이하의 가격대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선정했습니다.

✧ 더 플레이트

더 플레이트(The Plate)는 <미쉐린 가이드 파리> 2016 발간 편에 처음 선보인 ‘접시’라는 뜻의 또 하나의 미쉐린 가이드 심볼로 ‘좋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을 의미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잘 조리된 음식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더 플레이트’는 또 하나의 미쉐린 가이드 픽토그램으로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8> 발간 편부터 선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174개의 레스토랑이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변의 <미쉐린 가이드>가 소개하는 레스토랑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 지속가능한 착한 관광 ‘공정여행’

글/구성 36기 주혜림

입학 후 처음 맞는 겨울 방학은 길게도 느껴졌지만, 지나고 나니 아쉬울 만큼 짧은 생각도 듭니다. 원우 여러분께서는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국내로,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여행지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그동안 가보지 못한 관광지를 가거나, 평소엔 즐기지 못했던 액티비티를 즐기러 휴양지를 선택하거나, 낯선 환경과 문화를 체험하러 오지를 찾아 떠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기준을 맞춰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공정여행은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에 기준을 맞춘 여행입니다.

1. 공정여행이란?

공정 여행이란 공정무역에서 차용해 온 개념인데, 관광산업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역을 오히려 황폐화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현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으로, '착한 여행', '책임 여행'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인 여행의 형태인 '패키지 관광'은 관광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엔 어려운 구조입니다. 관광객들이 소비한 비용은 현지인들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외국계 여행사와 다국적 기업, 호텔 체인 등으로 유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현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와 환경오염, 관광객 소음으로 인한 공해로 지역 주민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을 하는 사람과 지역 주민의 삶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여행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2. 공정여행 주요 사례지



몰디브 (출처: 몰디브 관광진흥청)

✧ 해외사례 - 몰디브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몰디브는 초호화 리조트 덕분에 남아시아에서 인구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을 이어가는 '극빈층'이 42%에 달하고 실업률은 28%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의 분배와 개발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몰디브인은 거의 없고 리조트의 소유주는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결국 현지인들은 리조트에 고용되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이런 일자리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은 높은 관광지 물가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노숙자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몰디브를 방문하는 100만 명의 여행자들은 하루 3~4kg의 쓰레기를 남기고 물은 현지인의 30배를 사용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인 몰디브에서 현지인들은 물부족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수많은 고급 리조트들은 하루 3~4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떠나면 과연 몰디브에는 어떤 것을 남기게 될까요? 공정여행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문화를 함께 즐기며 자연과 환경을 함께 살리는 여행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 아닌 몰디브 현지인들이 마련한 즐거운 로컬여행을 통해 현지인들의 이윤창출에 도움을 주는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 국내사례 - 제주도



제주도 (출처: 월간조선)

이탈리아 베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서울 북촌마을, 통영 동피랑마을, 제주도 등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곳인데, 투어리스트피케이션은 관광지가 되어간다는 뜻의 '투어리스트파이(Touristify)'와 지역 상업화로 주민들이 밀려난다는 뜻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합성어입니다. 주거지역이 관광 명소로 알려지며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기존 거주민이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최근 제주도는 1인당 범죄 발생 건수, 쓰레기 발생량, 부동산 가격 등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객관적 지표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행지이지만 현지인에게 삶 터전인 곳이기 때문에 여행자에게도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더 이상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일상과 삶을 존중하는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 불편하고 낯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작은 생각과 실천들이 모인다면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행복한 여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의 공정 여행 십계명을 소개하며 마칩니다.

[공정 여행 십계명 (출처: 공정 여행이 지구를 살린다.)]

1.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와 음식점, 교통편, 여행사를 이용한다.
2.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산호, 상아 등)은 구매하지 않는다.
3. 동물을 학대하는 쇼나 투어에 참여하지 않는다.
4.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비행기 이용을 줄이고, 전기와 물을 아껴 쓴다.
5. 공정 무역 제품을 이용한다. 지나치게 가격을 따지지 않는다.
6. 현지의 인사말과 노래, 춤을 배워 본다.
7. 여행지의 생활 방식과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8. 여행 경비의 1%는 현지의 단체에 기부한다.
9. 현지인과 한 약속을 지킨다. 약속한 사진이나 물건은 꼭 보낸다.
10. 내 여행의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5. 다크 투어리즘 - 한국과 미국 사례지 소개

글/구성 35기 이우석

안녕하세요. 35기 이우석입니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 추석에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방문 당시, 미국에서 유명한 여행지 중에 뉴욕의 아픈 추억의 증거 “Ground Zero”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다크 투어리즘 사례지를 소개하며 여러분과 소통해보고자 합니다.

1. 다크 투어리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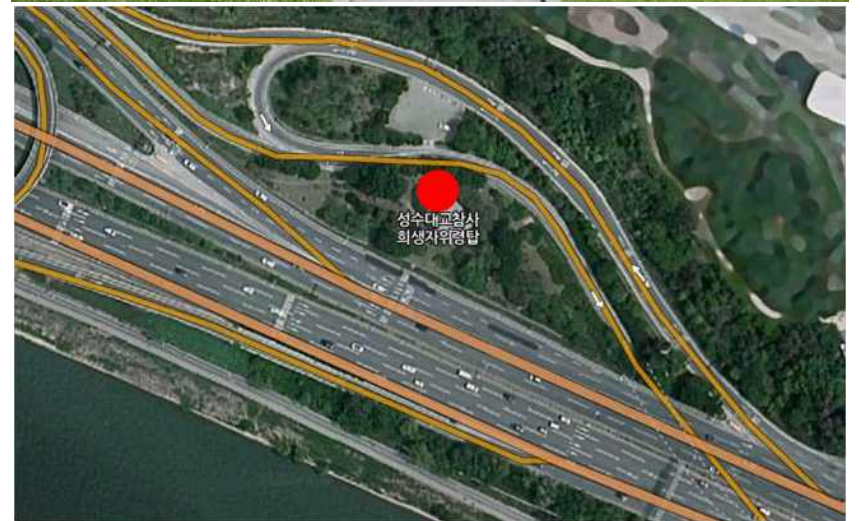
다크 투어리즘이란, 전쟁, 테러 등 비극적인 역사적 장소나 재난·지해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지로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한국의 서대문형무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주요 다크 투어리즘 사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례로는 미국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와 한국의 삼풍백화점 희생자 위령비,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탑입니다.

2. 다크 투어리즘 주요 사례지



그라운드 제로 'North Pool' 지하폭포



삼풍백화점 희생자 위령비(위),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탑 위치(아래)

✧ 미국 뉴욕 - 그라운드 제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뉴욕시는 2001년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쌍둥이 빌딩)가 서있던 바로 그 자리에 9.11 테러 추모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원 월드트레이드센터(One World Trade Center, 1WTC)의 전망대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았었고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나와 걷던 중에 마주친 9.11 추모공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관광업계에서 종사하며 관광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본 이 추모공원은 제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곳을 추모의 공간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재구성을 할 때, 진지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조성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다크 투어리즘 사례지가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 대한민국 서울 - 삼풍백화점·성수대교 희생자 위령비

지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잇따른 화재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중 삼풍백화점 사건은 당시 1995년 주거용 부지를 무리하게 용도변경 한 증축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참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500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37명으로 전쟁이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삼풍백화점 참사의 기록과 희생자 넋을 기리는 공간이 서울 양재시민의 숲에 '위령탑'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들 자가용으로 강변북로를 운전하면서 성수대교 근처를 지나는데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탑'이라는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애매하게 강변북로 도로 중간에 위치하여, 찾아가기 힘들게 조성되어있는데요. 뉴욕 그라운드 제로와는 다르게 위령탑이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 당시 깜짝 방문을 계획하였던, 남북 분단의 현장인 DMZ(비무장지대)가 최근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DMZ도 대표적인 한국의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DMZ 투어는 인바운드 업계에서는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 투어상품 중 하나입니다. DMZ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관광지만이 아닌 우리 분단의 현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평화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천연의 자연환경도 휴양지도 문화유산도 일본, 중국 등 관광대국에 비해 다소 부족한 곳이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은 언급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 수 있지만, 미국과 폴란드 등의 나라처럼 다크 투어리즘 사례지를 우리나라도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긍정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관광지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칩니다.

6. 대한민국의 봄 축제 - 태안 세계튤립축제, 창원 진해군항제

글/구성 34기 Elena Kim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올 시기인데요. 봄 시즌에 열리는 국내 축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충남 태안의 '세계튤립축제'와 경남 창원의 '진해군항제'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축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축제기간, 소요시간, 예매처, 이용요금, 장소 등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 국관인 여러분 하루정도 시간 내서 국내의 봄 축제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1. 태안 세계튤립축제



충남 태안 세계튤립축제 전경

지난 2002년과 2009년에 태안에서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가 열렸던 사실 알고 계시죠? 올해 4월에 열릴 예정인 2018 태안 세계튤립축제는 지난 2012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8 태안 세계튤립축제는 WTS(World Tulip Summit)로부터 2015년에 이어 2017년에도 호주 캔버라, 터키 이스탄불, 미국 스케젯밸리, 인도 스리나가르와 함께 세계 5대 튤립축제로 재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 네이처월드가 아닌 2002년과 2009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가 펼쳐졌던 꽃지 해안공원(코리아플라워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백만 송이의 튤립을 해안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2018 가을꽃축제'가 펼쳐질 예정이오니, 봄, 가을 모두 안면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 축제기간: 2018년 4월 19일(목)~5월 13일(일), 25일간
- 개장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 입장료: 성인 12,000원 / 외국인 10,000원 / 청소년 9,000원 등
- 주제: 꽃으로 피어난 바다, 대한민국이 빛나다
- 도입수종: 벤반잔텐, 엘로우프링그린 외 200여 품종
- 체험행사: 동물 먹이주기, 캐리커처 등
- 이벤트: 개막식, 연예인 초청 공연, 문화예술공연, 폭죽놀이 등
- 장소: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400(꽃지 해안공원)
- 주최: 태안꽃축제추진위원회
- 규모: 114,263㎡ (34,564평)
- 예상관람객: 약 55만 명

2. 창원 진해군항제

지난 1953년 4월 13일에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진해 북원로터리에 설치하고 추모행사를 한 것이 '진해군항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진해 주요 지역에 약 36만 그루의 왕벚나무가 심어져, 매년 봄마다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한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매년 약 200만 명의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올해는 진해군항제가 2018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중원로터리에서 전야제, 팔도풍물시장, 예술문화공연 등 주요 행사가 열리고 북원로터리에서는 이충무공 동상에 헌다헌화, 추모대제, 승전행차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또한 군항도시의 특성을 살린 '군악의장페스티벌'은 축제기간 중 개최 되는데 군악의장이 융합된 군대예술 공연으로 군악대와 의장대의 공연은 진해군항제의 대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군항제 기간에는 해군사관학교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함정 탑승과 박물관 및 거북선 관람이 가능하답니다.



진해 군항제 '경화역' 주변 풍경

창원시에 따르면 진해군항제는 총 6가지의 코스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A코스(3~4시간 소요/여좌천 로망스다리~중원로터리~제황산 공원~경화역), B코스(5~6시간 소요/해군사관학교~여좌천 로망스다리~중원로터리~제황산공원~경화역), C코스(5~6시간 소요/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여좌천~중원로터리~해군사관학교~경화역), D코스(5~7시간 소요/장북산조각공원~중원로터리~해군사관학교~제황산공원~경화역~안민도로), E코스(8시간 소요/해군진해기지사령부~여좌천~중원로터리~경화역~드림파크~창원해양공원), 체류형 관광 코스(장북산조각공원~여좌천~해군사관학교~중원로터리~진해루~경화역~드림파크~김달진문학관/소사마을~창원해양공원~웅천도요지전시관 등)으로 나뉘집니다! 코스가 다양해도, 여좌천 로망스다리와 해군사관학교, 경화역은 필수 코스겠죠?(편집자의 꿀팁)

- 축제기간: 2018년 4월 1일(일)~4월 10일(화), 10일간
- 장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
- 가는 법: KTX 창원역 하차 / 서울 남부터미널~진해 간 고속버스
- 주최: 창원시청

지금까지 이번 봄에 갈만한 국내 축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겨울이 유독 추웠던 만큼, 많은 국관인 여러분들이 따뜻한 봄을 기대하고 있을텐데요. 학업과 직장 업무도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봄 축제를 다니면서 기분전환도 하고 재충전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7. 싱가포르의 가성비 높은 맛집 大공개! - 싱가포르 먹킷리스트

글/구성 36기 정유진

싱가포르는 중국, 인도, 영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민족의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싱가포르에 가면 다양한 먹거리들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물가는 살인적이죠. 승무원인 제가 검증한 가성비 높은 식당 리스트를 일부 공개하려니 꼭 읽고 메모해주세요^^

1. 뉴튼 푸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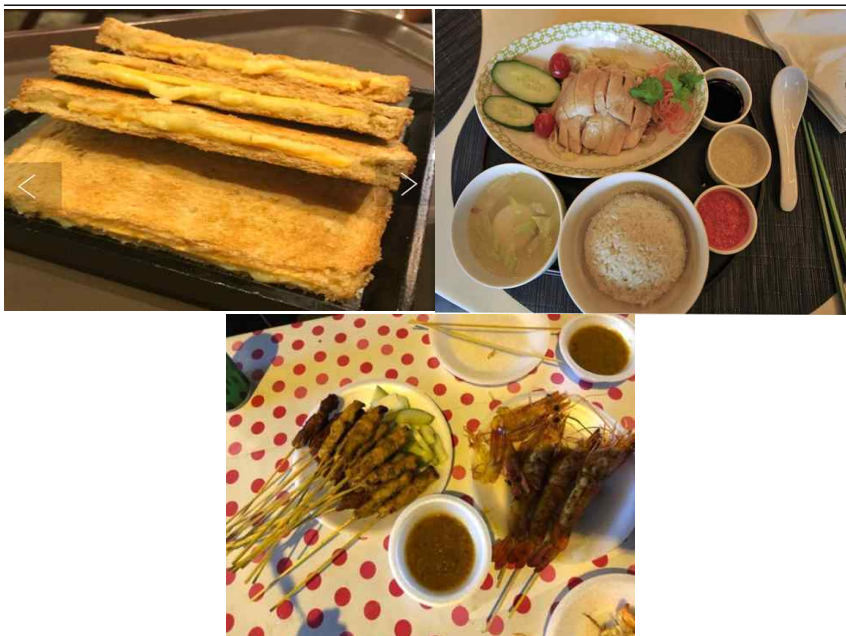
(시계방향순) 칠리크랩, 블랙페퍼 크랩, 시리얼 새우, 게살볶음밥 (출처: 네이버, 다음, yeowool89 인스타그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다들 즐겨 찾는 음식이 바로 '칠리크랩'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클락키 점보레스토랑에서 많이 드시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드신다면 '뉴튼 푸드센터'를 추천합니다!

뉴튼 푸드센터는 푸드코트의 일종으로 Newton역 8번 출구로 나와 육교를 건너면 바로 갈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칠리크랩'이 유명한 곳은 푸드센터 내 27번, 31번 가게가 가장 유명합니다^^

한편 '블랙페퍼 크랩'도 칠리크랩 만큼 유명하고 맛있는데요. 칠리 소스 대신 검은 후추로 맛을 내어 매콤하고 특유의 향이 일품입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은 볶음밥과 비벼먹기 좋은 칠리크랩을 더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칠리크랩과 블랙페퍼 크랩을 반반씩 시켜 먹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곳에서 크랩 요리와 함께 먹기 좋은 메뉴가 바로 '시리얼 새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칠리크랩보다 이 새우가 더 맛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메뉴인데요. 새우튀김에 시리얼 가루를 뿌려 넣고 볶은 음식입니다.



(시계방향순) 카야 토스트, 치킨라이스, '사테' 직화구이 (출처: 네이버, 다음)

'카야 토스트'는 '카야'라는 잼과 버터를 빵에 발라 구운 토스트로, 싱가포르 사람들은 아침에 반숙 달걀과 커피를 토스트와 함께 곁들여 먹고 하는데요. 한국인 입맛에도 아주 잘 맞아서 한번 중독되면 꼭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치킨 라이스'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민들이 즐겨먹는 대표 메뉴로, 이 푸드센터와 호커 센터 등에서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이 음식은 중국 하이난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닭고기를 삶은 물에 밥을 짓고 밥 위에 삶은 닭고기를 얹어서 먹는데요. 닭고기 육수, 각종 소스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사테 직화구이'는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꼬치에 꽂아서 직화로 구워먹는 음식인데요. 싱가포르에 사테 골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저녁마다 싱가포르 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 가는 법: MRT 레드, 블루라인 Newton 역 하차 후 8번 출구
- 이용 방법
 1.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찾는다.
 2. 점포의 메뉴를 선택한 후 값을 지불한다.
 3. 음식을 셀프로 가져오며 원하는 테이블에 앉는다.
 4. 다 먹은 후 그릇은 그대로 두고 나오면 된다.

2. 송파 바쿠테

- 위치: Songfa Bakkutteh 17 New Bridge, Clarke Quay

'바쿠테'는 한국의 진한 갈비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바쿠'는 돼지갈비를 뜻하고, '테'는 차를 뜻합니다. 돼지고기를 한방 약초와 마늘 등으로 맛을 낸 육수에 푹 익혀 먹는 요리입니다. 국물에 마늘 향이 베어 있어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고, 특히 어른들이 좋아하는데요. 뜨거운 국물에 푹 삶은 돼지갈비를 뜯고 있으면, 마치 한국 음식을 먹는 느낌이 듭니다! 국물은 무한리필이 되니 참고하세요^^



갈비탕과 흡사한 '바쿠테' (출처: yeowool89 인스타그램)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도시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로 떠나신다면 꼭 드셔야 할 음식으로만 엄선했습니다. 골라먹는 재미로 싱가포르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8. 인천국제공항의 재도약 -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세계를 향한 또 하나의 관문

글/구성 36기 박창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1월 18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제2터미널을 한마디로 “탁 트여서 머리 위로 비행기가 보인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한대로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대한항공에 의한, 대한항공을 위한 터미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상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2터미널은 1월 18일 오전 4시 20분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KE624편)의 도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2터미널의 첫 출발편은 오전 7시 55분 마닐라행 대한항공 KE621편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정보 확인해보시죠!

1. 제2터미널 간략 정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전경 (출처: 연합뉴스)

제2여객터미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보면 항공기 유도로가 터널 위에 만들어져 있어 이용객들이 머리 위로 항공기가 지상 주행하는 진귀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영종대교를 지나면 우측으로 제2터미널로 가는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제1~제2 터미널 사이에는 16km 거리의 연결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한편 공항철도로 1터미널에서 2터미널까지(길이 6.4km) 4분 조금 넘게 걸리는데, 서울에서 공항철도까지 이용가능하며 KTX 또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직통편으로 제2터미널 역까지 51분 걸립니다. KTX는 부산, 목포, 여수 등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하루 왕복 22회(하행 11회·상행 11회) 운행 중이며, 모든 열차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정차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분간 이용객의 혼선을 예상하여, 제1,2터미널 18km 구간에 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하루 왕복 229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요시간은 15~18분입니다.

제2터미널의 규모는 연면적 38만4336㎡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제1터미널의 70% 수준의 크기입니다. 제2터미널 완성으로 인천공항의 연간 수용능력은 현재 5,400만명에서 7,2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화물처리 능력도 기존 450만톤에서 580만톤으로 증가합니다. 제2터미널은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단열성능이 좋은 자재를 외벽에 사용하여, 제1터미널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약 37% 줄어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제2터미널 입주 항공사들은 스카이팀 소속 4개 항공사(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입니다. 그러나 같은 스카이팀 소속인 중국동방항공(MU), 중국남방항공(CZ), 베트남항공(VN), 중화항공(CI) 등 5개사는 여전히 제1터미널을 이용하여 논란이 예상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제1여객터미널 :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 저가항공사, 기타 외항사
- 제2여객터미널 : 대한항공 등 4개 스카이팀 항공사



제2터미널 내부 모습 (출처: 다음이미지)

<제2터미널의 주요 특징>

- ① 제1터미널과 직선거리 2km, 철도 6.4km, 육로 18km로 떨어져 있음
- ②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지하 2층 지상 5층, 연간 1,000만 명 수용
- ③ 스카이팀 소속 4개 항공사만 입주함
- ④ 안내로봇, 무인시스템 도입으로 출국시 소요시간 50분→30분으로 단축
- ⑤ 지하철역까지 59m, 버스 승차장은 실내에 조성, 무료 Wi-Fi 제공
- ⑥ 체크인 카운터는 A~H까지 6개 구역 총 204개, 37개 탑승구 갖춤

2. 제2터미널에 입점한 음식점

전국 맛집이 한곳에 모였을 정도로 유명한 음식점들로 가득한데요. ‘삼송빵집, 삼진어묵, 썬벡버거’ 등 간식, 패스트푸드 전문점뿐만 아니라,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은 곰탕 전문점 ‘평화옥’, 순회네 빈대떡, 가메골 손만두, 전주 가족회관 등 전국 유명 한식 맛집을 한곳에 모아둔 ‘한식미담길’까지 입점하였습니다. 단순한 공항이 아닌, 미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새로운 제2터미널에서 즐거운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제2터미널에 입점한 ‘평화옥, 한식미담길, 삼진어묵, 썬벡버거’ (출처: 평화옥, 다음이미지)